99년 3/4분기 고용동향 조사

조사연구실 동향분석팀

99년 3/4분기 고용동향 조사결과

조사결과 99년 3/4분기 정보통신부문 인력은 총 1백57,873명으로 99년 2/4분기대비 1.9%(19,481명)증가하여 99년 2/4분기의 1.7%를 잇는 증가세로 경기활성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정보통신산업 부문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1〉 정보통신부문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99. 1/4	'99. 2/4	증감(율)	'99. 3/4	증감(율)
정보통신산업 인력	375,868	376,177	309(0.1)	384,458	8,281(2.2)
정보통신서비스	97,855	97,602	-253(-0.3)	98,146	544(0.6)
정보통신기기	234,724	234,881	157(0.1)	241,529	6,648(2.8)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3,289	43,694	405(0.9)	44,783	1,089(2.5)
정보통신 관련산업	167,824	169,500	1,676(1.0)	170,199	699(0.4)
정보통신공사업	55,267	56,278	1,011(1.8)	56,784	506(0.9)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112,557	113,222	665(0.6)	113,415	193(0.2)
타산업 정보화 인력	476,927	492,715	15,788(3.3)	503,216	10,501(2.1)
합 계	1,020,619	1,038,392	17,773(1.7)	1,057,873	19,481(1.9)

정보통신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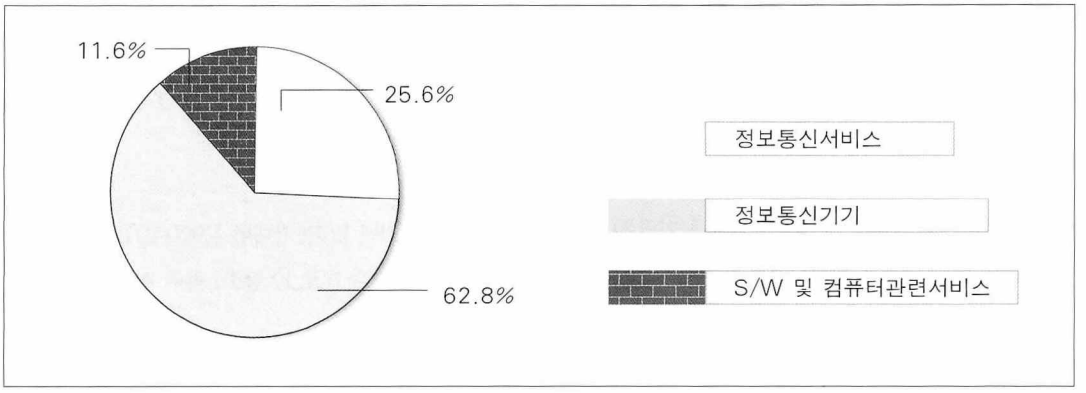
99년 3/4분기 정보통신산업 인력은 386,458명으로 99년 2/4분기대비 2.2%(8,281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99년 1/4분기의 0.2%(876명) 감소세가 99년 2/4분기 0.1%(309명) 증가로 반전된 이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냈다.(〈표 2〉 참조)

〈표2〉 정보통신산업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99. 1/4	'99. 2/4	증감(율)	'99. 3/4	증감(율)
정보통신서비스	97,855	97,602	-253(-0.3)	98,146	544(0.6)
정보통신기기	234,724	234,881	157(0.1)	241,529	6,648(2.8)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3,289	43,694	405(0.9)	44,783	1,089(2.5)
합 계	375,868	376,177	309(0.1)	384,458	8,281(2.2)

정보통신산업 인력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98,146명, 정보통신기기 241,529명,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4,783명으로 각각의 전체 정보통신산업 인력에 대한 비중은 25.6%, 62.8%, 11.6%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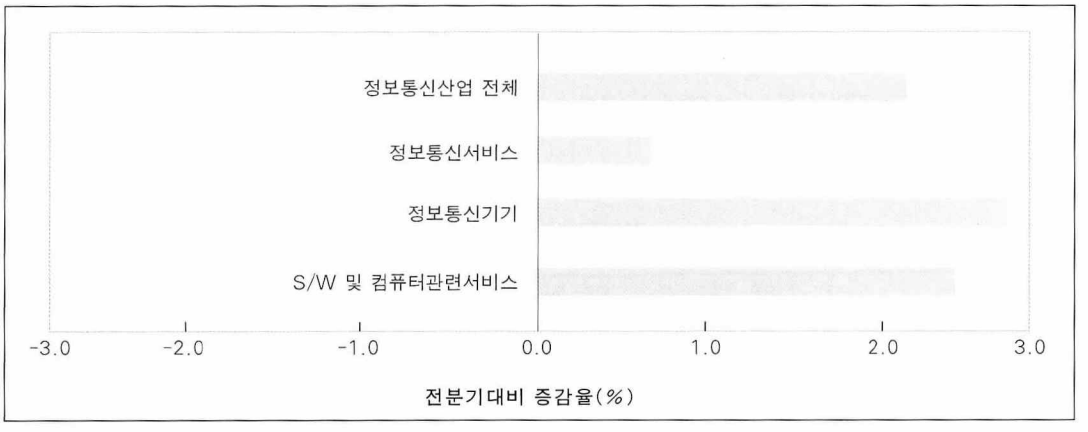
〈그림1〉 정보통신산업의 인력 현황



전분기대비 증감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가 전 분기 0.1%(157명) 증가보다 큰 2.8%(6,648명)증가를 나타냈으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가 0.9%(405명)에서 2.5%(1,089명)로, 정보통신서비스 인력은 0.3%(253명) 감소에서 0.6%(544명)로 각각 증가하였다.(〈그림2〉 참조)

그 주된 요인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서비스에서는 계속적인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감축이 이루어졌으나, 부가통신서비스 및 방송서비스에서는 최근 인터넷 활용 가능 인원에 대한 큰 수요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이동통신단말기 및 시스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산확대, 부품산업의 내수, 수출 확대 등에 따라 인력증가가 나타났으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의 경우 상반기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불법 S/W 단속, 기업의 정보화 추진 및 경영혁신(BPR)에 따른 각 업종별(통신, 유통, 및 금융 부문 등) DW, ERP 도입, 최근 부상하고 있는 CRM, KMS 등의 도입 확대 등이 주된 요인이다.

〈그림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인력 증감율



1) 정보통신서비스

99년 3/4분기 정보통신서비스 인력은 98,146명으로 99년 2/4분기대비 0.6%(544명) 증가하여, 99년 2/4분기 0.1%(253명)의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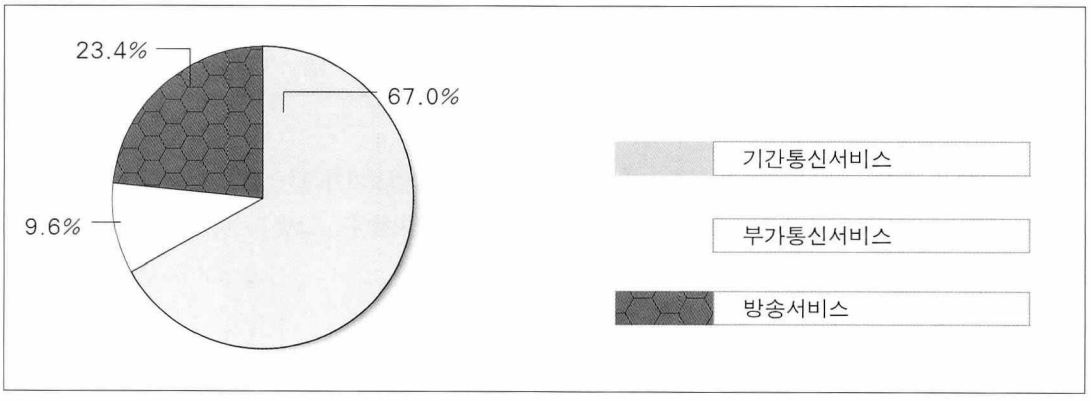
(〈표 3〉 참조)

〈표3〉 정보통신서비스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99. 1/4	'99. 2/4	증감(율)	'99. 3/4	증감(율)
정보통신서비스	97,855	97,602	-253(-0.3)	98,146	544(0.6)
기간통신서비스	66,229	65,892	-337(-0.5)	65,751	-140(-0.2)
부가통신서비스	9,189	9,194	5(0.1)	9,428	235(2.6)
방송서비스	22,437	22,516	79(0.4)	22,967	44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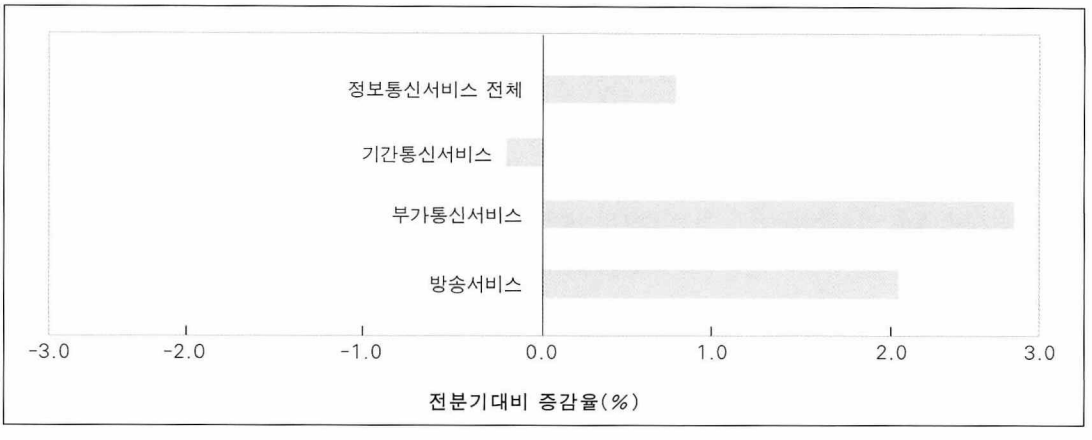
정보통신서비스 인력의 부문별 비중은 기간통신서비스가 65,751명으로 67.0%를 차지하였고, 부가통신서비스가 9,428명으로 9.6%, 방송서비스가 22,967명으로 23.4%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3〉 정보통신서비스의 부문별 인력



전 분기대비 증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부가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부문의 인력이 각각 2.6%(235명), 2.0%(449명)증가했고, 기간통신서비스 인력은 99년 2/4분기 0.5%(338명) 감소에서 0.2%(140명)으로 인원 감축의 폭이 둔화되었으며, 4/4분기에는 다시 인력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부가통신서비스는 99년 2/4분기에 이어 인터넷 관련 사업의 확대와 소자본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보제공서비스(IP)의 발전 및 사회

〈그림4〉 정보통신서비스 부문별 인력 증감율



전반에 걸친 활발한 인프라 구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서비스도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송과 프로그램의 보다 다양한 표현을 위한 CG 등에 대한 인력보강이 이루어졌다.(〈그림 4〉 참조)

2) 정보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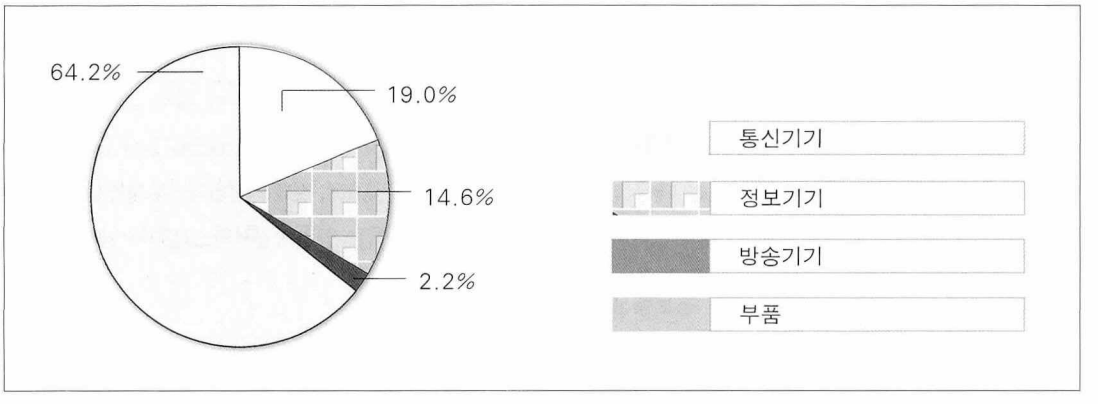
99년 3/4분기 정보통신기기 인력은 241,529명으로 99년 2/4분기 0.1%(157명) 증가에 이어 2.8%(6,648명) 증가를 나타내면서 최근의 경기활성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4〉 참조)

〈표4〉 정보통신기기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99. 1/4	'99. 2/4	증감(율)	'99. 3/4	증감(율)
정보통신서비스	234,724	234,881	157(0.1)	241,529	6,648(2.8)
통신기기	43,221	42,964	-257(-0.6)	45,938	2,974(6.9)
정보기기	34,360	34,500	140(0.4)	35,329	829(2.4)
방송기기	5,277	5,286	9(0.2)	5,375	89(1.7)
부품	151,866	152,131	265(0.2)	154,887	2,756(1.8)

정보통신기기 인력의 부문별 분포를 살펴보면, 통신기기 45,938명, 정보기기 35,329명, 방송기기 5,375명, 부품 154,887명으로 각각 전체대비 19.0%, 14.6%, 2.2%, 64.2%를 차지했다.(〈그림 5〉 참조)

〈그림5〉 정보통신기기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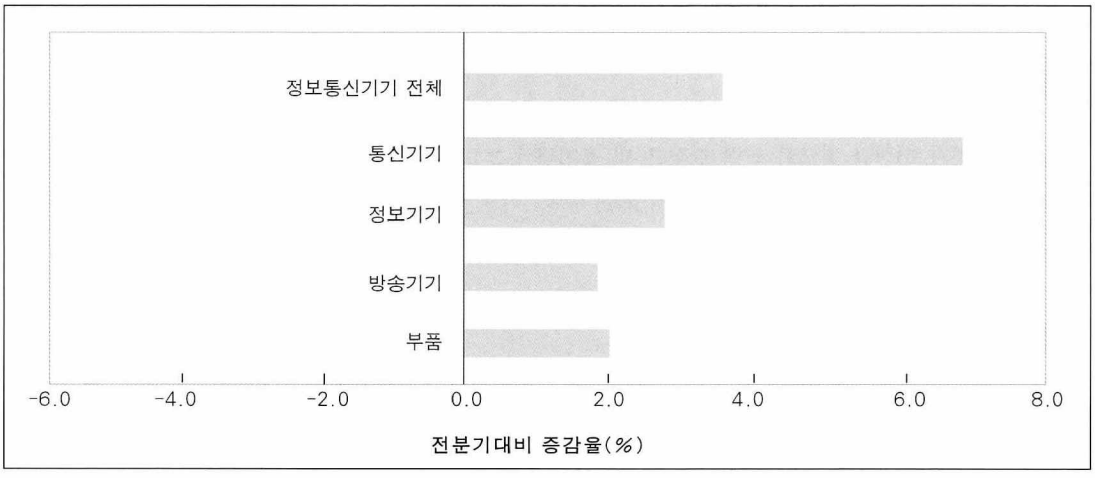


전 분기대비 증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통신기기가 6.9%(2,974명)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정보기기, 방송기기 및 부품 부문에서 각각 2.4% (829명), 1.7%(89명), 1.8%(2,756명) 증가를 나타냈다.(〈그림 6〉 참조)

통신기기의 경우 이동통신단말기 및 시스템의 내수, 수출 확대에 힘입은 사업확대에 따라 99년 2/4분기 0.6%(257명) 감소에서 큰 폭의 인력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정보기기에서는 보급형(저가용) PC의 등장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힘입은 내수, 수출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인력의 확충, 방송기기에서는 방송서비스 시장의 회복에 따른 기기 수요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나타나고 있다.

부품의 경우도 반도체 및 LCD(TFT-LCD 포함)의 최근 수출호조에 따라 관련 인력의 채용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림6〉 정보통신기기 부문별 인력 증감율



3)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99년 3/4분기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인력은 44,783명으로 99년 2/4분기대비 2.5%(1,089명) 증가한 것으로, 99년 2/4분기의 전분기 대비 0.9%(405명) 증가에 이은 결과로, 사업 확대에 의한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5〉 참조)

〈표5〉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99. 1/4	'99. 2/4	증감(율)	'99. 3/4	증감(율)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3,289	43,694	405(0.9)	44,783	1,089(2.5)

S/W 및 컴퓨터관련 산업의 인력증가는 99년 2/4분기 이후의 매출액(불법 S/W 단속 등의 요인) 증가와 그에 따른 인력 충원, 기업들의 사업활성화와 전산 도입의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로 여겨지며, 특히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려는 기업들의 정보화 추진 및 보다 효율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한 경영혁신(BPR) 차원에서의 각 업종별(통신, 유통, 및 금융 부문 등) DW, ERP 도입,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CRM, KMS 프로젝트의 수주확대에 의한 인력 충원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치열한 경쟁환경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타산업의 업무전문화(업무효율화)추진이 따른 아웃소싱(OUTSOURCING)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관련 시스템 운영(SM) 인력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관련산업

정보통신 관련산업 99년 3/4분기 인력은 전분기대비 0.4%(699명) 증가하여 총 170,199명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이 0.9%(506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이 0.2%(193명)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에 이어 기업, 정부의 네트워크 관련 발주가 확대되었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과 정보기술의 발달

에 따라 기업 전산화의 추진이 확대 된데 기인한다.

타산업 정보화인력

99년 3/4분기 타산업 정보화 인력 현황은 전 분기대비 2.1%(10,501명)증가 503,216명으로 전체 종사자 12,902,971명 중 3.9%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99년 상반기이후 전체산업에 걸친 인력의 확대과정에서도 3.9%의 정보화 인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정보화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9년 3/4분기 고용동향 조사의 시사점

99년 3/4분기에 들어서도 전분기에 이어 정보화 인력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와 함께, 전사회, 전산업에 걸친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3/4분기 들어 전반적인 정보화 인력의 증가 속에서도,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인력 증가 추세가 뚜렷이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정보통신관련산업은 2/4분기의 1.0% 증가에서 0.4%로, 타산업의 정보화 인력은 3.3%에서 2.1%로 전분기 대비 고용 증가폭이 다소 주춤해 졌으나, 정보통신산업은 0.1%에서 2.2%로 전분기 대비 고용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점은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전체 경제뿐만 아니라 고용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 산업별로 전분기 대비 고용증가가 두드러진 부분을 보면 최근의 경제 동향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정보통신기기(2.8%)와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2.5%)부문, 정보통신관련 산업 중 정보통신 공사업(0.9%) 부문, 타사업 중 금융 및 보험업(5.3%)과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2.3%)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보화 인력의 증가는 전사회적인 정보화의 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정보화 투자, 무선 인터넷, 인터넷 쇼핑몰, 전자예약서비스, 사이버 증권 등 새로운 사업분야 출현 등을 배경으로 한다. 구체적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부가통신서비스, 통신기기, 정보 기기 및 부품 산업에서의 내수 및 수출의 확대, 둘째, 상반기 이후 지속된 업무 전문화와 아웃소싱(OUTSOURCING)의 확대가 가져온 S/W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사업확장, 셋째, 인터넷 관련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기업의 지식기반시스템 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운영인력 수요도 늘어난 것, 넷째, 사이버 쇼핑, 인터넷 뱅킹,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분야가 계속 확대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정보화 인력은 전사회적인 정보화의 확대와 함께 계속 고용이 증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터넷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네트워크 관련 인력이 이 같은 정보화 인력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여겨진다